

해외정보

○ 국제 요소 가격동향

요소(尿素)의 국제가격은 지금 현재로써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암모니아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상승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업계소식통은 ‘아시아의 우기(雨期)가 언제쯤 시작되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지금 현재 그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탓에 서둘러 비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태국은 5월 들어 우기(雨期)를 맞이하여 활발하게 요소(尿素)를 수입하기 시작했으나 베트남은 아직 우기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요소(尿素)의 국제시황은 ①미국의 구조적인 천연가스부족 ②인도네시아의 국내수요 우선에 따른 수출정지조치 ③중국의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 등 비료공급시즌의 시작과 함께 공급측의 사정도 얹혀 있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개월간 국내수요가 왕성해지지만 천연가스의 부족으로 국내수요를 충당하기도 빠듯하여 수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업계소식통).

인도네시아제품은 4월 말을 시점으로 FOB가격 165달러 전후의 가격이 되고 있으나 물동량은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의 영향에 대해서는 ‘수출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베트남 수출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업계소식통).

이로 인해 해상운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제품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중동밖에 살 곳이 없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4년 5월 10일 >

○ 국제 해상운임 동향

부정기선 해상운임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하강세를 보이는 듯 하나 실제로는 이와 달리 모든 화물에서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재료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버블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고 업계소식통은 강조했다.

한편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내림세의 기미가 어렴풋이 보인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없으며 여전히 가격상승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소식통은 일본관련 일반운임지표가 되는 미 걸프(멕시코만)~일본간 항로가 통상보다 3자릿수 증가세의 상승시세를 보이고 있어 전에 없는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원재료의 버블현상”이 급상승하는 해상운임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상승이 지속되던 부정기선 해상운임은 최고시세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면서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여전히 가격은 오르고 있으며 미 걸프(멕시코만)~일본간 운임은 3자릿수 증가세의 상승시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핸디형(handy size) 선박 중심의 비료원료 및 제품관련 수송운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핸디형(handy size)은 선박부족에 직면하여 공간의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4년 4월 28일 >

◦ 카타르, 세계 최대규모의 질소공장 준공

카타르의 EMIR은 금주에 Qafco4 시설을 준공했다.

금년 2/4분기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질소공장은 현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55,000만 달러 규모의 공장은 2,000t/d 암모니아 공장과 3,200t/d 요소 공장 이외에 지원 설비를 갖추고 있다.

Qafco4이 준공됨으로써, Qafco의 암모니아 와 요소의 생산량이 50%와 65% 증가할 것이며, Qafco의 연간 총 생산량은 암모니아 200만톤, 요소 280만톤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공장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래뉼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Yara International의 기술과 160,000톤 용량의 요소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량저장을 기반

으로 한다.

Qafco는 Yara가 25%, 카타르 기업이 75%의 지분을 소유한다. Yara는 Qafco가 생산한 요소의 50%에 대한 마케팅 계약을 맺고 있다.

< Fertilizer Week 2004년 4월 30일 >

◦ 이스라엘의 Haifa, 새롭고 혁명적인 MKP 공정 착수

이스라엘의 Haifa 화학은 자체 개발한 새롭고 혁명적인 공정을 사용하여 기술적 등급의 모노-칼륨 인산(MKP)을 4월초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공정은 수산화칼륨(KOH)보다는 원자재를 기본으로 한다.

Haifa 화학은 수산화칼륨과 함께 기술적 등급의 인산에 반응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과정을 통해 1975년부터 상당한 양의 모노 칼륨 인산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 전에 수산화칼륨 공급자인 이스라엘의 Akko에서 전기화학 기업이 파산하면서 Haifa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했다.

새로운 생산은 Haifa에 있는 Haifa 화학 북부에서 개조된 기존의 설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설비는 연간 30,000톤의 기술적 등급 모노 칼륨 인산을 생산할 수 있다.

Haifa의 기존 모노 칼륨 인산 설비는 다시 전체가 가동 중이며, 새로운 공급자에게서 수산화칼륨을 지원받고 있다.

이 기존의 설비는 연간 17,000톤의 기술적 등급 모노 칼륨 인산과 연간 20,000 톤의 기술적 등급 DAP와 MAP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 Fertilizer Week 2004년 5월 7일 >

- 요르단 JPMC, 지분 판매를 위한 재정 컨설턴트 지명 중

요르단의 민영화 위원회는 요르단 투자 회사를 통하여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JPMC-요르단 인산 광산 회사)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기 위한 재정 컨설턴트를 지명하는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JPMC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위한 요르단 각료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민영화 위원회는 지난 5월 요르단 인산 생산자의 지분구매에 관심을 보인 캐나다의 Potash Corporation of Saskatchewan(PCS)의 직접적인 접근으로 인해, JPMC의 정부 지분의 판매에 대한 조언을 위한 재정 컨설턴트의 지명을 보류했다.

민영화 위원회가 다시 한번 재정 컨설턴트를 지명하기 시작한 사실 때문에 PCS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포기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정 컨설턴트의 지명이 보류되었을 때, 민영화 위원회는 관심 있는 4개 관계자로부터 입찰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HSBC, 프랑스의 BNP Paribas, 호주의 ANZ Investment Bank, 영국/미국의 Pricewaterhouse Coopers에 2004년 5월 20일까지 신청을 연기하도록 요청하여 입찰신청이 연기되었다.

민영화 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4개 입찰자에 대해 현지시간 4월 29일 18:00시에 입찰을 시작했는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민영화 위원회는 매각될 JPMC의 정부지분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매각은 재정 컨설턴트가 임명된 후 15-18개월 정도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PMC의 순이익은 2002년 JD550만과 비교하여 2003년에는 JD510만(720만 달러)으로 7.3% 감소하였다.

판매액은 2002년 JD19,830만과 비교하여 2003년에는 JD20,530만을 기록하여 3.5% 증가하였다.

2003년 생산량은 676만톤의 인산 광물을 생산하여 전년의 718만톤에 비해 감소하였다.

DAP 생산은 2002년 479,000톤과 비교하여 감소한 2003년 431,000톤을 기록했다.

인산의 생산 또한 감소하여 344,000성분톤에서 309,000성분톤이 생산 되었다.

< Fertilizer Week 2004년 4월 30일 >

- 중국, 황산 생산 연평균 8.1% 증가

중국의 황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황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생산량이 1995년의 1,684만 5,800톤에서 2001년 2,651만

3,400톤으로 증가했다. 1995~2002년 동안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8.1%에 달했다.

유황 수입량은 2001년 337만톤으로 가격은 CIF 톤당 40달러, 2002년 수입량은 409만톤에 CIF 톤당 45.7달러로 상승했다.

중국의 주요 황산 소비로는 과석, 황산암모늄, 중과석 및 인산암모늄과 같은 화학비료 분야와 농약 및 무기염과 같은 화학분야를 비롯해 합성세제, 트리폴리인산소다 및 합성지방산과 같은 경공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또 PAN섬유와 같은 직물분야 및 Metallurgical 분야에도 주로 소비된다.

중국은 농업국이기 때문에 화학비료의 생산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황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다.

황산은 중요한 기초원료로 화학, 경공업, 직물, 금속, 석유화학 및 의약제품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황산은 화학산업에서 화학비료의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데 소비량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중국은 유황의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주요 유황 수출국들은 2003년 수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황 프로세스는 코스트에서 여전히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의 황산 생산기업들이 Pyrite 프로세스를 완전히 포기하면 유황가격이 통제 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황산 생산기업은 600개 이상으로 80%가 소규모 생산기업이며 전체 생산량의 55%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황산 생산량은 여전히 하류제품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일부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황산 및 발열황산의 순 수입량은 1995년 4,610톤에서 2002년 182만톤으로 증가했다. 수입량이 중국의 전체 황산 수요량의 6%에 불과하나 순 수입량은 연평균 69.2% 증가하고 있어 생산 신장률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 화학저널 2004년 5월 14일 인용 >